농림축산검역본부 보도자료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보도시점 2026. 6. 5.(금) 11:00 배포 2026. 6. 5.(금) 09:00

검역본부, 소 질병 현안 공유 및 미래 연구과제 발굴

- 민·관·학·산 소 질병 전문가가 협력하는 '소 질병 분야 협의회' 개최(6.4.)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최근 국내 소 질병 발생 현황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관리 방안 및 연구 방향을 찾아내기 위해 '소 질병 분야 협의회'를 6월 4일(목) 대전 소재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한국우병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생산자단체, 학계, 현장 수의사, 산업체,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정부 방역기관 등 34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주요 소 질병 관리 및 예방대책과 향후 연구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주요 인수공통전염병인 결핵, 브루셀라병, 큐열의 국내 발생 상황과 역학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질병 예찰 방안에 대한 유대성 전남대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근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소 질병에 대한 진단기술 고도화와 효과적인 질병 방제를 위한 연구과제 발굴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아울러 상시 질병 감시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중장기적 질병 근절을 위한 연구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었다.

검역본부 김진형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이번 협의회는 현장의 소 질병 상황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하면서, "현장 애로사항과 제안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연구과제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책임자	과 장	조윤상 (054-912-0722)
		담당자	연구관	정옥미 (054-912-07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